

도전보다 안전...청년, 생계형 창업는다

지난해 광주신보 보증 대출 창업자 37% '음식점·숙박업' 몰려 제조업 비중 0.7%P 감소...기술력 있는 창업자 '특례보증' 실시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보증부 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의 37% 가량은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 업종'인 음식점·숙박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용보증진흥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청년창업자 4139명(건)이 신규 보증받은 금액은 760억5900만원으로, 광주신보 전체 신규 보증금액(2401억5000만원)의 31.7%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서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 7년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청년창업자 1명당 대출받은 금액은 1838만원 가량으로, 전체 1만2928명의 평균 보증액(1857만원)을 조금 밑돌았다.

청년창업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첫해 10% 넘게 줄어들었지만 이듬해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청년창업자 보증금액 비중은 지난 2019년 33.3%(2614억 중 869억)에 달했지만 2020년 21.3%(7754억 중 1649억)으로 줄어 들었다. 지난해 비중은 31.7%로, 30%대 비중을 회복했다.

청년창업자 신규 보증금액은 2019년 869억4600만원에서 2020년 1648억63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

었다. 지난해 신규 금액은 760억59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밑돌았다.

반면 신규 보증건수는 3888건(2019년)→6925건(2020년)→4139건(지난해) 등으로 코로나19 국내 창궐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청년창업자들의 자금 수요가 여전히 가운뎃이들의 창업 업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신보를 통해 보증부 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신규 보증금액이 278억3500만원으로, 청년 보증의 36.6%를 차지했다.

다른 업종에 비해 기술력과 시설투자 부담이 적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5.8%(311억2800만원), 2020년 31.9%(526억3600만원), 지난해 36.6% 등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1년 새 4.7%포인트 늘어난 동안 제조업 비중은 0.7%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제조업계를 운영하는 청년창업자의 보증 비중은 2.4%(18억2100만원)으로, 전년비중(3.1%·51억4400만원)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서비스업 비중도 3.7%포인트 감소

(471억8300만원→189억7200만원)했으며, 도·소매업은 0.4%포인트 감소(455억원→206억6300만원)했다.

지난해 청년창업자 1명(건)당 평균 대출금액을 보니 제조업이 19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896만원), 서비스업(1826만원), 도·소매업(1811만원), 기타(1705만원) 등 순이었다.

한편 광주신보와 광주시는 17일부터 기술력과 사업 안은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광주시가 출연한 20억원을 재원으로 총 2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최장 5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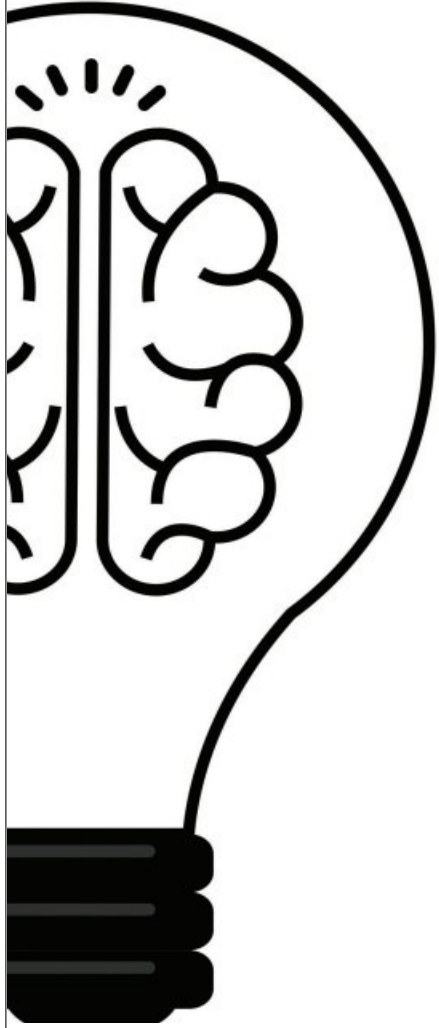
보증료율은 연간 0.5%이다. 1년 일시상환 고정금리는 최저 3.20%, 5년 분할상환 변동금리는 최고 3.64%(평균 3.34%)가 적용된다.

창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자는 광주신보 홈페이지(gjsinbo.or.kr:448)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 승인이 완료되면 특례보증서를 발행받아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청년들의 창업 촉진과 성장 장려를 통해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광주은행 송중동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17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150여 명의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국세청 '동해안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사진)이 17일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후원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직원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성금은 적십자사를 통해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이날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전주 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법인세 신고 도움창구를 찾아온 중소기업 납세자들이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



는지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이판식 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함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자연재해와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국민이 편안할,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농림부, 2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30일까지 '2022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7회를 맞는 이 대회는 농식품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응모 분야는 농식품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등 2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data.mafra.go.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6월30일까지 접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2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시상금은 4400만원이다.

수상작은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전문가 컨설팅, 홍보물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위 수상작 4점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 문의 044-861-875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채용시장 '메타버스' 대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신입사원 면접

기업 채용시장에서 가상공간 '메타버스'(Metaverse)의 활용도가 코로나19 시국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 등 대기업이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신입사원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타버스 'ZEP'〈사진〉에서 진행하는 채용 설명회 공간 곳곳에는 취업 준비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미리 참가신청을 해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채용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10만원이 훌쩍 넘는 왕복 교통비를 들여가며 상경하는 모습과 사뭇 달랐다. 단축기를 활용해 이동하거나 행사장에 입장하고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인상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경과 내부 주요 시설,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을 둘러볼 수 있다. 2012년 설립된 1공장부터 현재 건설 중인 4공장까지 공정도 볼 수 있다. 사업장 안에 마련된 기숙사와 어린이집, 병원, 카페 등 복지시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으로부터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방법 등을 전달받을 수 있고, 채용 담당자가 진행하는 라이브 채용 상담, 센터별 임직원이 참여하는 직무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기업 외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와 롯데백화점·롯데캐머스 등 롯데그룹 계열사 21개사도 메타버스에서 채용 설명회를 벌이고 있다. 롯데는 이번 채용상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면접과 교육 등에도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랜선 티타임을 열어 구직자와 쌍방향 소통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에 면접장을 연 기업은 한화시스템, 세븐일레븐 등 속속 생겨나고 있다.

취업정보포털 사업인이 구직자 2425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채용 확산에 대한 의견'을 묻자 76.0%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서 접속이 가능해서'(60.6%·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구직자(582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아서'(49.5%·복수 응답)와 '인사담당자와 대면 소통이 어려워서'(41.6%), '몇몇 대기업을 위주로만 진행돼서'(28.7%), '실제 유용한 정보는 부족할 것 같아서'(27.7%), '추가로 준비할 전형이 생긴 것 같아서'(26.6%)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전체 구직자 4명 중 1명(26.2%)은 이미 메타버스 채용 전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3%는 향후 메타버스 채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트코인 상승세...5000만원 안팎 등락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가상화폐 투자 심리 회복

17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5000만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오후 4시5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4983만9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93% 올랐다. 이날 오전 11시께에는 5109만90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1.88% 오른 4979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부터 5000만원대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갈등과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함께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간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0.25~0.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위함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일부 완화

될 조짐을 보이는 점도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군사작전 중단 등 내용이 담긴 평화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은 3%대 상승세를 보이며 337만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94.51 (+35.28)
▲ 코스닥	914.13 (+22.33)
▼ 금리(국고채 3년)	2.217 (-0.051)
▼ 환율(USD)	1214.30 (-21.40)